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승천하신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모님은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당연히 성모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눈을 돌려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하느님과 자기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자주 강조하시면서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가난한 나라에 백신이 부족한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 교구는 교황님의 제안대로 지난 부활절부터 가난한 나라에 백신을 보급하자는 취지의 ‘백신 나눔 운동’을 시작했고, 이 백신 나눔 운동에 신자는 물론 비신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 나눔 운동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禧年) 폐막일인 11월 27일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도움과 나눔을 실천할 때 성모님처럼 많은 이들에게 빛과 희망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2년째 대유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 대선을 앞둔 사회 속의 여러 갈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문제, 빈익빈

부익부 문제 등의 난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자연재해, 빈곤, 전쟁 등으로 많은 이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성모님은 오늘날에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께 전구해주시는 분입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요한 2,1-12) 성모님이 예수님께 바라는 바를 청하신 것처럼 성모님은 우리의 소원을 끊임없이 하느님께 대신 청해주시합니다. 성 김대건 신부님도 위험이 닥치면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성모님의 도움을 청했고, 성모님의 전구와 보호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타래처럼 엉킨 삶의 모든 문제들도 매듭을 잘 풀어주시는 성모님의 전구로 잘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모 승천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온 세상에,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형제자매들에게도 널리 퍼져나가도록 우리 신앙인들의 어머니,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 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염수정